

韓國 基督教 關聯 新聞의 書誌的 分析

임 동 빈*

<目 次>

- | | |
|---------------------------|----------------------------------|
| I. 諸 言 | 2. 基督教 關聯 新聞의 性格 |
| II. 基督教의 韓國 傳來와 開化 | IV. 基督教 關聯 新聞의 時代區
分 및 書誌的 分析 |
| 1. 基督教의 韓國 傳來 | 1. 導入期(1885-1910年) |
| 1) 天主教會(舊教) | 2. 確立期(1911-1934年) |
| 2) 프로테스탄트(改新教) | 3. 受難期(1935-1945年) |
| 2. 基督教을 통한 韓國社會의
開化 | 4. 激動期(1946-1960年) |
| III. 基督教 關聯 新聞의 出現과
性格 | 5. 整備期(1961-現在) |
| 1. 基督教 關聯 新聞의 史的
背景 | V. 結 言
參考文獻 |

I. 緒 言

한국 교회는 1784년 자발적으로 첫 교회를 세운 뒤에 조정으로 부터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은밀하게 일반대중에게 전파되어 103년 동안 버티다가 비로소 1887년에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 그 후에 한국의 기독교는 엄청난 발전을 하여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기독교 신자가 850만(천주교 132만명, 개신교 718만명)을 헤아리는 거대 기독교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많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새로운 복음전파 및 선교의 목적으로 다양한 기독교 관련 신문들이 출판되기

* 동래여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조교수

시작했다. 이 신문들은 이 땅에 평화를 심어 소외와 분쟁을 없애고 인류의 평등을 구현해 민주화를 이루는 목적으로 출발했다. 한국에 있어 舊敎, 新敎는 선교 초기부터 복음 전달을 文字미디어에 의존하였다. 천주교회는 귀족과 선비의 미디어인 한문을 사용하여 언어의 구사도 고도로 세련된 상류사회의 것을 채용하였다.

그러나 改新敎는 복음전달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한글을 사용하여 대중과 관계지으려는 노력으로 요사이 말하면 매스미디어를 채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결국 일반 서민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광범위하게 선포하는 계기가 되어 기독교가 급속히 발전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開化期의 기독교 관련 신문들은 유교를 기반으로 하여 구축되었던 전제 봉건주의 체제에 대항하여 서양의 발달된 새로운 학문과 지식을 소개하여 민족 개화를 추진하려는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그러나 미숙한 운영으로 신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대부분이 敎團, 宗派, 黨派 등의 대변지로 변모하면서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것이 무척 안타까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 관련 신문의 시대적 史的 고찰을 통하여 그 간행 목적과 내용, 그리고 특징 등을 분석하여 보고져 한다.

II. 基督教의 韓國 傳來와 開化

1. 基督教의 韓國 傳來

韓國의 기독교 전래는 <天主敎會>와 <改新敎會>가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두개의 분류로 나누어 약술하고자 한다.

1) 天主敎會(舊敎)

우리 동양에 처음으로 천주교를 전파한 성직자들은 예수회 神父들이었다. 그들은 明나라와 日本에서 활발한 전교 활동으로 많은 신자들을 확보했기때문에 우리나라

라에 대하여서도 傳敎의 뜻을 품고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스페인의 세스페데스(Cespedes. G)神父는 1577年 日本의 九州地方인 肥前の 武將인 천주교 신자였던 아리마하루노부(有馬晴信)의 城下에 머물르면서 傳敎를 했으며, 1590년에 日本 국내를 통일한 토요토미히데요시(豊信秀吉)는 1592年 4월에 明나라를 정복한다는 핑계로 15萬7千名의 대군을 일으켜 朝鮮으로 쳐들어 왔는데, 그의 속셈은 이 出征으로 日本 國內에 퍼져있는 天主教를 없애버리자는 생각이었다. 때문에 천주교 신자로 편성된 크시니유키나가(小西行長), 黒田長政에게 군사 5만을 주어 朝鮮 정벌의 거사를 단행하였다. 그들은 부산, 울산, 웅천등의 해안에 18城을 쌓고 6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일본 주재 예수회 部管區長인 고메스(Comez)에게 軍宗神父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비로소 세스페데스(Cespedes. G)신부와 日本의 傳敎會長 후간 에이온(Foucan Eion, 不干에이온)을 朝鮮에 파견했다.¹⁾ 이들은 1593년 12월 27일 부산에서 상륙하여 웅천성에서 약1년동안 군인들에게 告解聖事와 彌撒(Missa)집전 및 새 신자들에게 세례를 배풀었다. 또한 이들은 조선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 일본에 끌려간 조선 민간인들에게 전교를 했으며, 국내의 조선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으나 우리와 적대관계에 놓여있던 그 상황으로는 불가능했다. 결국 세스페데스(Cespedes. G)神父는 심한 박해를 받다가 1611년 6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예수회 선교사들은 조선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리치(Ricci, M : 梨瑪竇), 샬(Shall, A : 蕩若望)의 신앙은 높아서 중국을 찾는 조선인은 새로운 문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은 접촉했다. 특히 마태오 리치의 《天主實義》²⁾를 조선 중기의 학자인 이수광은 그의 저서 《芝峰類說》³⁾에서 분류하므로써

1) 류홍열, 한국 천주교회 역사, 성요셉 출판사, 1990, pp.14-15.

2) 이 책은 <마태오, 리치>가 저술한 漢譯西學書이다. 上下 2卷으로 모두 8편으로 나누어 174항목에 걸쳐 西士 : 서양학자, 中士 : 중국학자가 대화를 통하여 토론하는 형식으로 꾸며진 카톨릭 교리서이며 護敎書이다.

3) 이 책은 <이수광>의 저서로 20卷 10冊으로 되어 있으며, 자신이 지은 古書, 古聞에서 뽑아서 엮은 奇事逸聞集으로 일종의 百科事典이다.

우리나라에 알려져 일부 유교 지식인들 사이에 많이 열독되고 논평되었다. 그러므로 1784년 조선 천주교회를 창설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후부터 기독교는 서양의 학문으로서 우리나라 학자(李瀼, 愼後聃, 安鼎福, 李檠, 權哲身, 權日身, 丁若鍾, 丁若鏞, 李承薰)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로 空理空論에 빠진 형식적인 朱子學을 반대하고 實事求是를 추구하는 實學運動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후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의 종교적 진리를 깨닫게 되어 이를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서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⁴⁾

1784년 李承薰은 北堂의 신부 그라몽(Grammont, J. J. de : 梁棟材)에게 교리를 배워 세례를 받고 돌아왔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천주교 활동이 본격화 되었고, 활발한 전교활동을 펴서 李檠, 丁若鏞, 丁若鏞, 金範禹, 權日身, 權哲身, 李存昌, 柳恒儉 등의 많은 친지와 학자들을 천주교회에 입교시켰다. 그 결과로 金範禹의 집에서 처음으로 신앙집회를 가지므로써 이들의 천주교 사상이 민간인들에게 깊숙히 호응을 얻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혼란스런 사회 경제속에서 朱子學에 대한 배척과 새로운 이념의 사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천주교 사상이 급속도로 전파되자 당시에 朱子學을 신봉하던 조정과 층들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결과로 천주교회에 대한 엄청난 피비린내나는 많은 박해가 일어났는데 즉 1791년(正祖15年)에 辛亥耶獄,⁵⁾ 1801年(純祖1年)에 辛酉耶獄,⁶⁾ 1839년(憲宗5年)의 己亥耶獄⁷⁾이 발생하여 외국선교사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들의 활동은 계속되어 1845년(憲宗

4) 東亞原色世界大百科事典, 第5卷, 東亞出版社, 1983, p.385.

5) 辛亥耶獄은 北京主教 구베아(Gouvea : 湯士漢)에 의하여 하달된 “조상세사의 미신행위를 금한다”는 당서에 의하여 조정만대자들에 의하여 1791년 辛亥年 겨울에 전라도 珍山에서 丁若鏞의 外從인 尹持忠, 權尙然 등이 순교했다.

6) 辛酉耶獄은 1800년 7월 4일 純祖가 즉위하자 祖母였던 貞純王后(英祖의 繼妃)가 垂簾聽政을 하면서 그 친정 오빠였던 金龜柱의 원한을 갚으려고 時派인 천주교 신자들에게 대 박해를 가하고서 五家作統法을 써서 周文謨 神父와 李承薰, 丁若鏞등 300여명의 교우들을 순교하게 했다.

7) 이 耶獄은 <己亥教難>이라고도 하는데 1939년에 僻派의 兪璣趙氏가 時派의 安東金氏를 물리치려는 속셈에서 趙萬永(1776-1846)이 일으킨 耶獄으로 權得仁, 李光獻등의 200여 교우들이 순교했다.

11年)에는 金大建이 한국 최초로 神父가 되었으나 1846년(丙午迫害)⁸⁾로 男女敎友 6名과 함께 처형되었다. 또한 1866년(高宗3年)에는 大院君에 의한 <丙寅大迫害>⁹⁾가 일어나 9명의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교우들이 처형되었다.

그러나 결국 大院君의 鎖國政策은 무너지고 1882년(高宗19年)韓美修好條約을 비롯하여 歐美 여러나라들과의 條約의 체결, 특히 1886년 韓佛修好條約은 불안전 하나 朝鮮에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를 가져왔다. 이때부터 불란서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한국 최초의 本堂인 서울의 鍾觀本堂(現在의 東東聖堂)이 3년간의 분쟁끝에 완성되었다. 이로써 韓國 天主教史의 103년 동안의 박해시대가 끝나고 종교의 자유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2) 프로테스탄트(改新敎)

개신교가 한국에 그리스도 신앙을 전파시키려는 노력은 상당기간에 걸쳐서 間歇적으로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1816년 영국의 홀(Hall, B), 1832년 독일의 구츠라프(Gutzlaff, K. F. A), 1866년 영국의 토마스(Thomas, R), 1867년 스코틀랜드의 윌리엄슨(Williamson, A) 등에 의하여 꾸준히 시도되었으나 당시의 국내 사정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高宗10年(1873) 스코틀랜드의 자유교회 출신인 로즈(Rose, J)는 滿洲 通化縣 高麗門에 진출하여 義州 출신인 李應贊, 李盛夏, 金鎮基 등을 만나 성서번역에 착수하였다. 이 결과로 1882년에는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번역 간행되었으며, 1887년에는 마침내 <예수성교전서>라하여 新約聖書 전부가 번역 간행되었다. 그 이전에 이들은 1876년에 세례를 받으므로써 한국최초의 교회를 탄생시킨 셈이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8) 이 迫害는 1846년 金大建 神父가 <중국신부에게 보내는 편지>, <조선지도 2개>등을 중국에 전하고 延坪島에 체류중 관헌에게 붙들려 金大建 신부를 비롯한 林致百, 南景文등 6명이 처형된 사건이다.

9) 이 迫害는 천주교회가 자유를 얻으려 할 무렵 외국인(러시아, 프랑스, 미국)들이 국경을 자주 침범함과 동시에 忠南德山에 있는 남연군 무덤을 파헤침으로서 대원군의 분노를 사게되어 1866년 부터 일어난 박해로 가장 많은 교우들이 순교했다.

(Underwood, H. G)가 일본에서 간행된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를 가지고 1885년에 인천에 상륙하여 각종 선교사업을 전개했으며,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의료선교사인 알렌(Allen, H. N)이 1884년 9월22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그해 甲申政變으로 중상을 입은 閔泳翊을 서양 의술로 치료하여 왕실의 신임을 얻어 1885년 4월에 廣惠院을 개원, 이를 계기로 기독교 선교의 문호가 개방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역시 아펜젤러(Apponzeller, H. G)가 인천에 도착했고, 5월에는 역시 북감리교의 스크랜턴(Scranton, W. B) 母子가 도착하여 梨花學堂을 세웠으며, 아펜젤러는 1886년 培材學堂을 개교하였다. 한편 1892년에는 미국 남장로교의 레이놀즈(Reynolds, W. I), 데이트(Tate, L. B), 렌킨(JenKin, W. M) 등이 전라도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했고, 남감리교는 1895년 10월에 리드(Reid, C. F)가 開城을 중심으로 교육과 선교사업에 치중하였고, 1889년 오스트렐리아 장노교 선교부는 자립원칙의 선교정책으로 복음전파를 했으며, <聖公會>는 1891년, 1893년에는 캐나다<長老教>, 1904년에는 <第七日 安息教>, 1907년에 <聖潔教>, 1908년에 <救世軍>이 자선사업에 치중하여 각각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초기의 한국 교회는 조선사회의 이질감 때문에 심한 배척을 받으면서도 민족과 왕실에 대한 충성으로 철저한 민족교회로 그 형질을 굳히며 애국운동에 앞장섰다. 이러한 결과로 드디어 일본을 대항하여 겨레의 민족혼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1907년 1월 평양에서 大復興會가 열리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교회는 많은 신자의 증가로 도시와 농어촌에 開化의 바람을 불어 넣어 민족자존을 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¹⁰⁾

2. 基督教을 통한 韓國社會의 開化

天主敎의 개화사상은 언론과 교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이것은 결

10)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제4권, 한국 정신문화 연구소, 1991, pp.419-420.

국 애국 계몽운동이었다. 즉 국권이 위태로운 시기에 내적 개화를 강조하면서 국민을 自強運動에 적극참여를 계몽하였다. 천주교의 교육사업은 국민 기초교육에 치중했는데 1909년부터는 독일 芬道會를 초대하여 서울에 사범교육과 실업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일본인들의 교육독점으로 결국 폐교되었다.¹¹⁾ 그러나 천주교는 다시 개신교와 함께 선교와 개화의 목적으로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교육사업은 종래의 초등기관들이 중·고등기관들로 개편되고 또한 성직자 양성기관인 神學校가 <神學大學>으로 승격되었다. 이에 반하여 개신교는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처음 시작한 일들은 순수한 복음전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한국 사회의 접근방법은 한국이 요구하는 교육과 의료사업, 고아원사업, 간행물 발간으로 시작되었다. 그리서 심령상의 구원과 함께 육신의 치료에 힘쓰는것이 선교의 한 방편이 되었고 무지를 계몽하여 새로운 세계를 밝혀줌이 선교의 첩경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선교 초기에 정부의 布教禁壓 정책을 둔화시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때문에 알렌(Allen, H. N)은 1884년에 서울 齊洞에 廣惠院(濟衆院)을 개설하여 치료 및 서양의술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런 결과로 長·監(長老敎, 監理敎)교계에서는 의료선교가 당시 기독교 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¹²⁾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많은 기독교 학교를 설립했는데, 즉 서울에 <培材><梨花><敎新><貞信><培花>, 평양에 <崇實><崇義> 그리고 松都에 <韓英書院><好壽敦女學校> 등을 설립하여 서양의 발전된 교육을 시키므로써 우리 민족에게 적극적인 개화의 씨를 뿌렸다.

그럼 여기서 기독교가 추진한 개화의 중요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보고져 한다.

첫째: 舊習에 대한 강한 비판의지.

한국인의 정신적 자세의 왜곡됨을 지적하여 개혁을 유도했다. 즉 우리 일상생

11)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제4권, 한국정신문화연구소, 1991, p.417.

12) Fred Harvey Harrington, *God Mammon and the Japanese*, 1966, pp.63-65.

월에 깊이 뿌리박은 구습에 대하여 강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개선하려 했다.

둘째 : 술, 담배, 아편 금지 행위.

이 문제는 聖書에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금지를 했던 것은 아니고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자신의 청교도적 신앙, 양심 결단에 의하여 또한 한국인의 개화진보를 위해서 다만 禁하기를 권했다.¹³⁾

셋째 : 미신타파 운동.

기독교인의 對社會的 태도의 하나로 한국의 풍속에 있어서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점을 비판하여 시정하려 했다.

넷째 : 婚禮, 葬禮의 행위의 변화모색.

옛날 풍속의 모순점을 개혁하여 경제적이고 검소한 풍속 행위로 변화시키려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

다섯째 : 女權伸張과 女性 教育의 必要性을 강조.

한국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유교적 전통사상에 의하여 男尊女卑의 가족운리를 주장하던 당시에 女性의 정당한 지위를 인식시켜 남녀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도록 주장한 것은 기독교가 한국사회에 남긴 큰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또한 여권 신장의 方策으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많은 교육기관을 세워 국민 역량을 키웠고, 남녀 평등권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¹⁴⁾

Ⅲ. 基督教 關聯 新聞의 出現과 性格

1. 基督教 關聯 新聞 出現의 史的 背景

선교 초기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사업에 병행해서 한국사회의 근대화

13) 李萬烈, 韓國基督教 文化運動史, 大韓基督教 出版社, 1992, p. 63.

14) 李萬烈, 上揭書, p. 76.

를 위한 위대한 사명감으로 언론기관을 창설했다. 물론 각종 기독교 서적을 출판한 후에 신문이 刊行되기 시작했다.¹⁵⁾ 韓國 基督教 關聯 新聞의 출간은 한국 근대화와 밀착된 문화적 현상으로 즉 대원군의 쇄국정치가 붕괴될 무렵 1876년에 韓日修好條約을 비롯하여 서구의 여러나라들과의 수호조약이 체결되어 서구 문화가 침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개화에 눈이 뜬 개화당의 신진세력(金玉均, 朴泳孝, 徐光範) 등이 日本을 왕래하면서 일본 민중교육의 선각자인 福澤諭吉을 만나 조선의 개화와 국정개혁에 관한 의논을 한결과 첫째로 청년들의 교육을 장려할것, 둘째로 漢城에서 신문을 발행할것, 셋째는 漢城에서 신식군대를 훈련할것 등을 합의하고 일본은 신문간행과 군사훈련에 대한 기술지도를 약속했다. 이 결과로 朴泳孝는 漢城判尹이 된 즉시 漢城府에 新聞局을 두어 신문 창간 준비에 착수했으나 수구파의 반대로 朴泳孝는 廣州留守로 좌천되고 다만 한국에 왔던 日本 기술자들에 의해 統理衙門 博文局에서 1883년 12월3일에 <漢城旬報>를 창간했다.¹⁶⁾ 이 신문의 官報의 성격을 띤것으로 가로16.4cm × 세로22.3cm의 크기로 매월 10일 간격으로 3회 발행했다. 그러나 이 신문도 1884년 12월에 개화당의 甲申政變 이후 <三日天下>로 망하자 守舊波의 閔氏 일파에 의하여 폐간되고 만다. 그러나 이 신문의 복간에 관심을 가졌던 金元植은 高宗의 허락을 얻어 井上角五郎과 의논하여 일본에서 새로 기계와 활자를 구입하여 종래의 旬刊을 週刊으로 題號도 <漢城週報>로, 문체는 國漢文을 혼용하여 1886년 1월25일 다시 창간하였다.¹⁷⁾ 한편 甲申政變 후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중이던 徐載弼(1863-1949)도 귀국과 동시에 민중과 함께 자주 독립의 일환으로 신문발행에 착수하여 1896년 4월7일 <독립신문>을 순한글판과 영문판으로 각각 발행했다.

이 신문은 한국 최초의 민간신문으로 초기에는 3週 간격으로 나오다가 후에는

15) 金元植, "韓國基督教百餘年," 基督教思想, 1983(7), p. 52.

16) 金奉奎, "教會新聞의 出現前夜," 基督教思想, 1968(12), pp. 56-57.

17) 崔垞, 韓國新聞史, 一潮閣, 1990, pp. 25-26.

日刊으로 발전하여 민중계몽과 애국을 고조시킨 신문이다. 그러나 1899년 독립회원들의 <萬民共同會>¹⁸⁾ 사건이후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관계인사들이 체포 및 해외 망명을 하므로서 <독립신문>도 1899년 12월4일에 폐간되고 만다.¹⁹⁾

한국 기독교 관련 신문의 역사는 미국 북감리교회의 아펜젤러(Apazzeller, H. G)목사에 의하여 1897년 2월2일에 창간된 <조선크리스도인 회보: The Christian Advocate>와 1897년 4월1일에 언더우드(Underwood, H. G)가 발행한 <그리스도신문: The Christian News>로 시작된다. 이 두개의 신문은 그후 8년동안 간행되다가 1905년 두 교파 신문의 통합으로 그해 6월 24일에 폐간되고 <그리스도신문: The Christian News>로 7월1일부터 週刊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후 장로교 선교사 게일(Gale, J. S)이 사장이 되면서 이 신문은 한국 최초로 교파 연합신문이 되었다. 그러나 1907년 12월10일에 <예수교신보: The Church Herald>로 다시 題號를 바꾸어 격 주간으로 간행하다가 결국 1910년 2월21일에 폐간되고 말았다. 그후에 장노교회에서는 1910년 2월28일에 <예수교 회보: The Christian News>와 감리교에서는 1911년 1월31일 <그리스도 회보: The Korean Christian Advocate>를 각각 교파적 성격으로 창간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기독교 관련 신문들은 교파적인 것에서 시작하여 초교파적으로 묶이었는데 다시 교파적인 것으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겪은 셈이다. 한편 천주교에서는 1906년 10월9일 <京鄉新聞>을 창간했는데 이 신문은 한국 천주교에서 간행하는 최초의 신문으로 단순한 교회신문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정치면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편집되었다. 이외에도 1908년 6월에 영국의 聖公會에서 간행한 <宗古聖教會 月報>와 救世軍에서 1909년 7월1일에 간행한 <구세신문: Official Gazette of the salvation Army in Korea>이 있다.²⁰⁾

18) 1898년 독립협회 주최로 열린 민중대화로 3월 종로 네거리에서 러시아인들의 度支部 고문과 군부교련사단의 해고를 요구한 대회로, 결국 보수적 관인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19) 金泰奎, 前掲書, pp.56-57

20) 이덕주, 한국기독교 정기간행물 100년, 기독교 교문사, 1987, p.14

2. 基督教 新聞의 性格

한국에는 1898년을 기점으로 많은 민간신문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 때에 간행된 신문들의 성격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나눌수있다.²¹⁾

첫째: 자주독립의 사상을 기반으로 주장하는 신문으로서 <협성회회보><빅일신문><경성신문><皇城新聞><대국신문> 등이 있다.

둘째: 위와 같은 개화파 신문에 대항하기위해서 守舊派들이 간행한 신문으로 <時事叢報><商務時報> 등이 있다.

셋째: 한국 침략을 목적으로 언론을 통해 발판을 구축하려는 일본의 앞잡이로 내세운 <대한신보>가 있다.

넷째: 선교의 목적으로 간행된 종교신문인 <조선 그리스도회보><그리스도신문> 등이 있다.

이들 신문들은 당시 개화기의 사회적 상황에 필연적인 현상이지만 그들의 업적은 대단했다.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개화파들이 제작한 민간 신문들은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심없이 시대적 지도기능을 다하는 선각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 중에 특히 초기의 기독교 관련 신문들의 성격은 동양사상 특히 유교적인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던 한국인들에게 근대적인 의식 개혁을 위한 계몽적인 흔적이 많이 눈에 띈다.

즉 고루한 유교적 사상에 젖어있는 한국인들에게 새 지식을 가르치고 개화된 서양문명을 섭취하여 진보된 국민이 되게 하려는 의도였다.²²⁾ 때문에 현재의 기독교 관련 신문들 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양하게 실어 무분별하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였다.²³⁾ 특히 <그리스도 신문>의 농사에 관한 지식은 미국에서도 우수한 내용으로 명성이 있었던 만큼 당시의 과학지식 수준에 큰 공헌을 했다.

21) 吳周煥, 韓國近代史, 第2輯, 新丘文化史, 1969, p.249.

22) 金元植, 前掲書, pp.52-53.

23) 金聚奎, 前掲書, p.61.

또한 筆陣도 대단히 훌륭하여 기독교 관련 신문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반 신문에 비하여 편집기술이 뛰어나 誤字나 誤植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훌륭했다. 그러나 재정적 영세성과 지나친 교파 중심의 출간으로 신문의 역사는 發刊, 停刊, 廢刊 등으로 계속성 없는 숨바꼭질을 하여 신문들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지 못하고 마치 버려진 사생아와 같이 자라다간 죽어가고 그대로 자라났다해도 땅아와 같은 기형성을 면하지 못했다. 즉 기독교 관련 신문들은 제대로 교단의 기관지와 유사하게 自派 本位의 이익과 他宗派 타도의 전위 역할만하여 공정한 언론 보도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현재에도 기독교 관련 신문들은 여전히 재정의 영세성과 교단, 종파, 당파의 대변자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IV. 基督教 新聞의 時代的 區分 및 書誌的 分析

1. 時代的 구분

한국 기독교 관련 신문의 시대적 구분은 학자들 나름대로 주장하여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본 稿에서는 이덕주씨가 《한국 기독교 정기간행물 100년》이란 논문에서 밝힌 시대적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나누어 그 시대적 배경과 그 시기에 창간된 기독교 관련 신문의 서지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단계 : 導入期 (1885-1910年)

제2단계 : 確立期 (1911-1934年)

제3단계 : 受難期 (1935-1945年)

제4단계 : 混沌期 (1946-1960年)

제5단계 : 整備期 (1961-現在)

1) 導入期(1885-1910年)

(1) 時代的 背景

소위 舊韓末이란 칭호로 구별되는 이 시기는 국내의 利權이 점차로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고 정부는 자주성을 잃어가며 신봉하던 봉건주의가 퇴색하고 대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식 병원 및 교육기관들이 설립되어 개화 문명의 영향으로 점차 새로운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체험하게 되는 기회, 즉 오랫동안 한국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유학 정신 사상이 무너지고 기독교에 바탕을 둔 새로운 서구 지향적 정신문화가 창조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러한 결과로 그리스도 교회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정신문화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²⁴⁾ 또한 인쇄술의 발달로 각종 한글 서적들이 출판되면서 지금까지 천대받던 한글이 본격적으로 서민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되므로써 우리민족의 주체성이 확립되고 새로운 문물을 경험하게 하는 시기였다.

(2) 當時 刊行된 基督教 關聯 新聞의 書誌的 分析

① 朝鮮크리스도인 회보

- 발 행 인 : 아펜젤라(Appenzeller, H. G)
- 창간년월일 : 1897년 2월 2일
- 발행 주기 : 주간
- 발 행 소 : 미국 감리회
- 체 재 : 純國文版으로 4면 2段制(1段 27行 1行 25字)으로 4號活字

使用

- 폐간년월일 : 1905년 6월 24일
- 내 용 : 이 신문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독교 신문으로 국호가 대한민

24) 이덕주, 前掲書, p. 12.

국으로 변하자 <대한그리스도인 회보>로 改題하였으며, 주로 중요한 事蹟과 특이한 소문과 기독교에 관한 것을 게재하여 일반의 지식계몽에 힘을 썼다. 후에 한일 합병이 되자 다시 前의 題號로 환원되었으며, 후일의 <監理會 會報>의 전신이 된다.²⁵⁾

② 그리스도 신문

- 발 행 인 : 언더우드(Underwood, H. G)
- 창간년월일 : 1897년 4월 1일
- 발행 주기 : 주간
- 발 행 소 : 북(北)장로회
- 체 재 : 純國文版로 4·6培版 8面으로 刊行
- 폐간년월일 : 1910년 2월 21일
- 내 용 : 종교를 토대로 한 종합적 편집으로 참신한 편집기술과 내용이 무척 다양했다. 감리교의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와 장로교 선교사인 게일(Gale, J. S)이 통합하여 한국 최초의 연합신문이 되어 1907년 12월 10일에 <예수교 신보>로 제호를 바꾸어 격주간으로 간행했다. 특히 이 신문은 固定欄으로 근대적 농사법과 가내공업에 대한 지식을 소개했다.

③ 京鄉新聞

- 발 행 인 : 드망즈(Demange, F)
- 창간년월일 : 1906년 10월 19일
- 발행 주기 : 주간
- 발 행 소 : 타블로이드판 4면을 발행하면서 부록으로 <보감>을 발행하였고 한글을 사용하였다.
- 내 용 : 천주교 재단에서 애국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治外法

25) 崔埈, 前掲書, pp. 86-87.

權的 지위를 이용하여 統監府의 언론 탄압을 피하고자한 하나의 방편으로 창간되었다. 이 신문은 종교지였으나 종교 관계 기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사도 많이 실었다. 1911년에는 <京鄉新聞>으로 改題되어 月刊이 되었다. 1946년 10월 6일 경성 천주교 재단의 신문으로 다시 창간되었으며, 처음부터 보수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자유당 시절에는 야당성과 반독재 노선을 분명히하여 결국 1959년 4월에는 폐간을 당했으며 1960년 4월 27일에 다시 속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④ 예수교 신보

- 발 행 인 : 게일(Gale, J. S)
- 창간년월일 : 1907년 12월 10일
- 발행 주기 : 隔週刊
- 발 행 소 : 재 한복음주의 선교 연합회
- 체 재 : 純國文 3段制
- 폐간년월일 : 1910년 2월 21일
- 내 용 : 언더우드 목사가 경영하던 감리교와 장노교의 연합신문이다.

지식의 보급과 교회연합이란 임무를 띤 신문으로 제1면에는 시사문제를 취급했고, 제2면에는 각지방의 교회통신을 게재했다.

⑤ 구세신문

- 발 행 인 : 허가두(R. Hoggard) 正領
- 창간년월일 : 1909년 7월 1일
- 체 재 : 小製8面
- 폐간년월일 : 1942년 12월
- 내 용 : 1949년 5월15일 <구세공보>로 속간되었으며, <救世軍>의 기관지로서 내용은 구세군이 되고자하는 사람들의 준수사항, 구세군 조직, 구세군 대장의 전기, 광고 등이 게재되었다.

2) 確立期(1911~1934年)

(1) 時代的 背景

한일합방(1910년)以後 한국 기독교 선교 150년을 맞은 1934년까지 35년간은 한국 기독교 신문, 잡지가 크게 발전한 시기였다. 우선 量的으로 다양한 종류가 발행되었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충실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간을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1911~1919년간은 일본의 조선 총독부 초기단계인 武斷政治시대로 엄청난 언론 탄압으로 많은 신문, 잡지가 폐간되어 사실상 <언론의 암흑시대>라고 볼 수 있다.²⁶⁾ 그러나 1920년 이후부터는 새로 부임한 조선 총독 齋藤實은 종래에 실시하던 무단정치 대신 문화정치를 표방하여 밖으로는 宥和된 모습을 보여 어느 정도 출판,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사실상 내부부터 조선민족의 정신문화를 말살하려는 고도의 통치 정책이 수행된 시기이다.²⁷⁾ 그러나 이 시기에 민간신문들과 더불어 기독교 관련 신문들도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했었다. 그러나 일본은 만주사변(1931년)을 기점으로 침략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초기 보다는 더욱 심한 우리 출판문화에 대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결과로 1930년대를 전후로 전성기를 맞이했던 기독교 신문들도 극소수가 그 명맥을 유지했을 뿐이다. 더구나 일제라는 탄압세력과 각종 원인으로 일어난 교회들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기독교 관련 신문들은 더욱더 안팎으로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던 시기였다.

(2) 當時에 刊行된 基督教 關聯 新聞의 書誌의 分析

① 그리스도 회보

- 발 행 인 : 크램(Cram)

26) 이덕주, 前掲書, p.21.

27) 이덕주, 上掲書, p.22.

- 창간년월일 : 1911년 1월 31일
- 발행 주기 : 月 2回 (15, 30日)
- 발 행 소 : 감리교 선교부
- 체 재 : 純國文版 4段制, 小型 8面 발행
- 폐간년월일 : 1915년 2월 28일
- 내 용 : 主된것은 논설, 성경공과, 교회통신, 교육, 가정학, 實業談叢 등을 실었다.

② 기독교신보(The Christian Messenge)

- 발 행 인 : 하디(Hardie, R. A)
- 창간년월일 : 1915년 12월 8일
- 발행 주기 : 주간
- 발 행 소 : 기독교 신보사
- 체 재 : 6面 5段制 小型
- 폐간년월일 : 1937년 7월 31일
- 내 용 : 두 교파(장, 감)의 신문들인 <예수교 회보>와 <그리스도 회보>가 연합하여 창간한 신문으로 主된 내용은 기독교 관련 기사 및 농업에 관한 것으로 정치기사는 배제했다. 이 신문은 독자의 반응이 커서 1917년에는 독자가 3,000여명이 되었다.

③ 天主教 會報

- 발 행 인 : 조셉 베르모델
- 창간년월일 : 1927년 4월 1일
- 발행 주기 : 월간
- 발 행 소 : 朝鮮南方天主公敎青年會
- 체 재 : 4 × 6培版 8面

- 폐간년월일 : 1933년 3월 18일

- 내 용 : 이 신문은 평신도 차원에서 발행했는데 1931년 7월부터는 대구교구기관지로 인정받아 2千部까지 발행했다. 그러나 서울 교구의 <별>신문과 경쟁이 되자 1933년 주교회회에서 두 신문을 폐간하고 <가톨릭青年>을 간행했다.²⁸⁾

④ 감리회보(The Korean Methodist)

- 발 행 인 : 케이블(Cable, E.M)

- 창간년월일 : 1933년 1월 20일

- 발 행 소 : 조선 감리회 총리원

- 체 재 : 4 × 6培版 32面 國漢文 混用

- 폐간년월일 : 1942년 4월

- 내 용 : 감리교의 활동소식을 주로 실었다.²⁹⁾

이 以外에도 다음과 같은 신문들이 간행되었다.

新聞名	創刊年月日	發刊年月日	發行週期	發行人	發行所	체 재
青年	1931. 3. 12	1941.	주간	F.S, Brocdman	조선중앙 기독교 청년회 (YMCA)	A5판 40면 국한문 혼용
慶北老會教會報	1929. 9. 26	1940. 9.	월간	아담스 김봉호	대구 성경학교	국배판 6면 한글 4단
별	1927. 7. 10	1935. 5.	월간	박준호 정지용	서울교구	?
勉勵會報	1931. 1. 9	1936. 6. 1	월간	W.J, Amderson	경성 기독교 청년면려회 조선 연합회	국배판 4면 국·한문 3~6단
節制	1931. 1. 13	1938.	부정기	許魚源	조선 기독교 절제회	4×6배판 16면 국한문 4단

28) 韓國新聞百年(史料集), 韓國新聞研究所, 1975, p. 499.

29) 李萬烈, 前掲書, p. 379.

新聞名	創刊年月日	發刊年月日	發行週期	發行人	發行所	체제
殉教者	1933. 9. 7	?	월 간	S. A, Moffett	토마스목사 순교기념 사업회	4×6배판 20면 국한문
東滿勉勵 會報	1932. 5. 25	?	월 간	G. F, Bruce	기독교청년 면려회 등만연합회	국배판 6면 국한문 15단
망인보	1913. 1. 15	?	?	R. R, 힐리스터	만국성경 연구회	?
宗教時報	1913. 12.	1935. 12.	월 간	許大 殿	장로회 총회 종교 교육부	4×6배판 20면 국한문
전도가보	1934.	?	부정기	E. M, Black	부흥전도 대후원회	국배판 8면 국한문 6단

3) 受難期(1935~1945年)

(1) 時代的 背景

이 시대는 우리 민족의 언론 사상 가장 어려운 수난의 시대였다. 1931년 <만주사변>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만주에 친일 괴뢰정부를 수립하여 <大東亞共榮>이란 구호아래 東아시아를 장악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더욱더 강력한 총독부 정치를 폈다. 1938년 5월에는 <國家總動員法>을 공포하여 본격적인 戰時體制로 바꾸면서 각종 언론활동이 제한되었다. 이 시기에 기독교 관련 신문들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었는데 즉 신앙적, 민족적 양심을 고수하여 항거하다가 정간, 폐간된 신문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완전히 친일체제에 순응하면서 일본을 옹호한 신문도 있었다. 이 신문들은 한국 기독교의 일본화 내지는 한일 기독교의 통합이 신문발행의 목표로서 총독부의 종교정책을 선전 옹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교회지도자들은 물질적으로 일본의 전쟁 수행에 적극 협조한 모습으로 광복을 맞게 되었다.

이 굴절된 신앙, 왜곡된 교회의 모습이 일제 말기로 지칭되는 1935~1945년간의 신문과 잡지에 그대로 투영되어 오늘날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³⁰⁾

(2) 當時 刊行된 基督教 關聯新聞의 書誌的 分析.

① 基督教報

- 발 행 인 : 홀드크로프트, 정인파
- 창간년월일 : 1936년 11월 21일
- 발행 주기 : 주간
- 발 행 소 : 경성 기독교교보사
- 체 재 : 타블로이드版 8面, 國漢文 9版으로 縱書
- 폐간년월일 : 1938년 7월 29일
- 내 용 : 이 신문은 창간호를 5권1호로 냈는데, 그 이유는 조선 장로 교회가 1932년 12월부터 기관지로 발행하던 <宗教時報>를 1935년 12월에 제 4권 12호로 끝내고 1936년 1월부터 <基督教報>로 계승 간행했기 때문이다. 내용은 주로 설교, 논문, 문예, 성경연구, 통신, 잡문 등의 형태로 꾸며졌다.³¹⁾

② 慶南 教會報

- 발 행 인 : 孟皓恩 (JS, McRae)
- 창간년월일 : 1937년 1월 1일
- 발행 주기 : 월간
- 발 행 소 : 경남노회 종교교육부
- 체 재 : 타블로이드版 4面, 國漢文 5版
- 폐간년월일 : 1938년 12월 1일

30) 이덕주, 前掲書, p. 38.

31) 尹春炳, 韓國基督教新聞·雜誌, 100年史(1885-1945), 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84, p. 242.

• 간행 목적 : 이 신문은 주로 교회의 정보교환을 비롯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있었다.

③ 長老會報

- 발행인 : 정태희
- 창간년월일 : 1940년 1월 24일
- 발행 주기 : 주간
- 발행 소 : 장로회 총회 사무국
- 체 재 : 타블로이드版 8面に 國漢文과 日本文 혼용, 9段
- 폐간년월일 : 1941년 8월 13일
- 내 용 : 이 신문은 교회신문인데도 일본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당국의 정책과 지시를 교회들에게 알려 교회의 시국화를 위해 창간되었다.

④ 基督教新聞

- 발행인 : 德川仁果
- 창간년월일 : 1942년 4월 29일
- 발행 주기 : 주간
- 발행 소 : 기독교 신문협회
- 체 재 : 국배판 8面, 國, 漢, 日문을 섞어 4~6段
- 폐간년월일 : 1944년 6월 2일
- 내 용 : 조선 총독부는 <監理會報> <長老會報> <구세신문>등을 각각 폐간 시키고 <基督新聞>을 간행했는데, 그 목적은 한국 기독교가 日本的 進度에 기여한다는 것으로 즉 한국 기독교의 日本化 내지는 한일 간의 기독교 통합이었다. 때문에 이 신문은 일본 총독부의 종교 정책을 선전하고 옹호하였다.³²⁾

32) 尹春炳, 上揭書, pp.271-272.

⑤ 農村通信

- 발 행 인 : 앤더슨
- 창간년월일 : 1935년 3월 1일
- 발행 주기 : 월간
- 발 행 소 : 조선 예수교 장로회총회 농촌부
- 체 재 : 국배판 4面, 國漢文혼용 6段
- 폐간년월일 : 1936년 12월
- 내 용 : 이 신문은 기독교의 對사회운동 일환으로 전개된 당시의 농촌 운동을 적극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신문이었다. 내용은 주로 농업에 필요한 기사들로 구성되었다.

⑥ 朝鮮節制時報(The Temperance Times)

- 발 행 인 : 魚解理
- 창간년월일 : 1936년 4월 1일
- 발행 주기 : 월간
- 발 행 소 : 조선 절제시보사
- 체 재 : 국배판 8面, 國漢文혼용이며 6段
- 내 용 : 이 신문은 <조선 기독교 절제운동회>의 기관지로 기독교 절제 운동의 계몽활동을 위해 창간되었다. 즉 자제생활, 사회정화, 신앙 실재화 등의 강령을 세우고 이 운동의 이론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많은 기사들을 수록했다.³³⁾

⑦ 福音時代

- 발 행 인 : 朱基榮
- 창간년월일 : 1937년 6월 1일
- 발행 주기 : 월간

33) 이덕주, 前掲書, pp.72-73.

- 발 행 소 : 복음시대사
- 체 재 : 국배판 4面6段, 國漢文 混用
- 내 용 : 이 신문은 재일교포인 젊은 敎道者들에게 한글 교육을 통한 민족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간행했다. 내용은 주로 종교에 관한 논설, 논문, 상식 등이었다. 그러나 민족주의 성격이 강하여 朱基榮이 구속되므로서 폐간되었다.

이 以外에도 다음과 같은 신문들이 간행되었다.

新聞名	創刊年月日	發刊年月日	發行週期	發行人	發 行 所	체 제
全北勉勵會報	1935. 6. 1	?	月 刊	.	기독교청년 면려회전북 연합회	
基督世界	1938. 1. 1	?	月 刊	최 석 주	기독교세계사	
國民新聞	1945. 11	?	日 刊	김 우 현	국민신문사	타블로이드 판 2 면

4) 混沌期(1946-1960年)

(1) 時代的 背景

8·15 광복을 맞아 억압과 탄압에서 풀려난 한국교회는 각자 많은 의견을 신문에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그동안 교파간의 내부적 갈등과 경영난으로 이미 폐간되었던 신문들과 다른 새로운 신문들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간행되어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6·25동란으로 기독교 관련 신문들은 다시 초토화되었다가 비로써 1960년 4·19학생 의거로 자유당 정권이 몰락하면서 다시 雨後竹筍처럼 간행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기서 1945~1960년 까지의 15년을 6·25사변을 기점으로 시대적 상황측면에서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전반기는 국가적으로 <新生組織 建設>이라는 시대적 명제

를 놓고 그 방법론에 대한 갈등과 마찰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듯, 교회에서도 말살된 기독교 신앙을 재건한다는 명제를 놓고 각 교파간의 심한 갈등을 겪게되어 결국 해방직후 부터는 교회가 분열되는 엄청난 시련을 초래했다. 이 결과로 기독교 관련 신문들도 이 양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각 교파간의 불신과 비방의 글을 서로 많이 실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기독교 관련 신문은 스스로 체험 하면서 성숙과自省의 기회를 얻은 시기였다고도 볼 수 있다.

(2) 當時 刊行된 基督教關聯 新聞의 書誌的 分析

① 基督教 公報(The Christian Weekly)

- 발 행 인 : 金春培
- 창간년월일 : 1946년 1월 17일
- 발행 주기 : 주간
- 발 행 소 : 기독교 남부대회 출판부
- 체 재 : 타블로이드版, 4面6段, 國漢文 混用
- 폐간년월일 : 1950년 6월
- 내 용 : 이 신문은 일제 말기에 통합된 교단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창간되었으며, 1951년 부터는 <기독교보>로 속간되었고, 1970년에는 題號가 <한국기독교보>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大邱每日新聞

- 발 행 인 : 禹炳進
- 창간년월일 : 1946년 3월 31일
- 발행 주기 : 일간
- 발 행 소 : 대구매일신문사
- 체 재 : 타블로이드版, 2面
- 내 용 : 1960년 7월 이후에 전국 신문으로 발전하면서 지령 제4780호

부터 <매일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발행했다. 그러나 1980년 11월 30일 언론 통제합으로 <영남일보>와 함께 1980년 12월 1일 지령 제11,198호부터는 다시 <대邱 每日新聞>으로 題號가 바뀌어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다.

③ 基督教 新聞(The Christian Times)

- 발 행 인 : 張時華
- 창간년월일 : 1946년 3월 6일
- 발행 주기 : 주간
- 발 행 소 : 경천애인사
- 체 재 : 국배판 4면 8段 國漢文 混用
- 내 용 : 이 신문은 어느 교파에 치우치지않고 기독교의 정론을 견고저한 초교파 신문이었다.

④ 불기둥(The Pillar of fire)

- 발 행 인 : 趙東震
- 창간년월일 : 1947년 12월 9일
- 발 행 소 : 신앙 동지회
- 체 재 : 타블로이드版 4면 10~12段 國漢文 混用
- 폐간년월일 : 1950년 3월
- 내 용 : 이 신문은 진보적인 신학운동을 배격하고 보수적 신앙론을 강력히 주장한 신문이었다.

⑤ 가톨릭 시보

- 발 행 인 : 崔正福
- 창간년월일 : 1949년 4월 1일
- 발행 주기 : 격주간
- 발 행 소 : 천주교 대구교구 출판부

• 체 재 : 倍大版 4面

• 내 용 : 이 신문은 6·25동란으로 休刊되었다가 1953년 3월에 <카톨릭時報>로 改題하고, 1980년에는 <카톨릭 신문>으로 다시 改題하였으며, 주간으로 발행하여 현재까지 천주교의 거대신문으로 발전하고 있다.

⑥ 韓國基督教新聞(The National Christian Press)

• 발 행 인 : 姜壽岳

• 창간년월일 : 1951년 7월 15일

• 발행 주기 : 주간

• 발 행 소 : 한국기독교서사

• 체 재 : 타블로이드版 4面 11~12段 國漢文 混用

• 폐간년월일 : 1953년 9월 26일

• 내 용 : 이 신문은 6.25사변 당시 부산을 발행지로 시작하여 1958년 9월 1일 <한국기독교서보>로 題號를 변경하여 간행했는데 자유당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여 정통성을 상실하므로써 많은 빈축을 샀던 신문이다.

⑦ 浸禮會報(The Baptist Press)

• 발 행 인 : 장일수

• 창간년월일 : 1955년 8월 20일

• 발행 주기 : 월간

• 발 행 소 : 한국 침례회연맹

• 체 재 : 타블로이드版 4面 國漢文 混用

• 내 용 : 이 신문은 한국 침례교회 기관지로 부산에서 창간되어 현재까지 간행되고 있다. 내용은 침례교 총회의 동정, 사설, 성경주해, 교육기사, 행사 및 문예 등을 실고 있다.

⑧ 基督教 뉴스

- 발 행 인 : 深華錫
- 창간년월일 : 1960년 7월 7일
- 발행 주기 : 주간
- 발 행 소 : 서울 을지로 3가 291
- 체 재 : 大版 2面 16段
- 간행 목적 : 이 신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회> 기관지로 W·C·C의 교회연합 운동을 반대하기위한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⑨ 크리스찬(Voice of Christian)

- 발 행 인 : 김대보
- 창간년월일 : 1960년 7월 9일
- 발행 주기 : 주간
- 발 행 소 : 크리스찬사
- 체 재 : 타블로이드版 4面 從5段 純國文
- 내 용 : 이 신문은 교회연합과 협동정신을 표방하고, 보도의 중립, 교회의 혁신, 교회의 중립성을 주장했다. 1962년 12월에는 紙齡 100호를 기념하여 4면을 증면하였다. 1964년 1월1일 <문공부>인가를 받아 7월11일자 176호부터 <크리스찬 신문 : The Christian Press>으로 題號 를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⑩ 복음일보

- 발 행 인 : 고병억
- 창간년월일 : 1960년 10월 1일
- 발행 주기 : 일간
- 발 행 소 : 복음일보사
- 체 재 : 타블로이드版 2面 9段 純國文
- 내 용 : 이 신문은 한국 교회가 대담하게 국민사상에 침투하여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에서 출발되었는데 1961년 5월 23일 시설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되고 1964년 4월22일로 週刊 〈福音新聞〉으로 발전되었다.

⑪ 基督日報

- 발행인: 金 鏡
- 창간년월일: 1960년 10월 11일
- 발행 주기: 일간
- 발행 소: 기독교보사
- 체 재: 大版 2面
- 폐간년월일: 1961년 5월 28일
- 간행 목적: 교회분쟁의 방패가 되고 불신 사회의 근절에 두고 있다.

⑫ 새 사람(New Man News)

- 발행인: 이영옥
- 창간년월일: 1960년 10월 13일
- 발행 주기: 부정기
- 발행 소: 한국 기독교 학생연맹
- 체 재: 타블로이드版 3段制 순한글

⑬ 宗教新聞

- 발행인: 白明浩
- 창간년월일: 1960년 11월 1일
- 발행 주기: 주간
- 체 재: 大版 4面 16段制
- 간행 목적: 이 신문은 宗教本質의 暢達宣揚, 종파분쟁 지양, 종교개혁 등으로 사회질서 정화에 창간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신문들이 간행되었다.

新聞名	創刊年月日	發刊年月日	發行週期	發行人	發行所	備考
홍국시보	1946. 7. (?)	?	월 2 회	함 태 영	기독교 홍국형재단	
조선감리 회 보	1947. 12. 5	1950. 6. 1	월 간	강 태 회	기독교조선 감리회	
基督申報	1948. 12. 4	?	주 간	오 윤 태	제일대한 기독교회	
長老會報	1948.	1950.	월 간	김 광 현	장로회보사	<복음신문> 으로 개제 (1953. 4. 22)
구세공보	1949. 5. 15	?	월 간	로 드	구세군 대한본영	<구세신문> 으로 개제
基督公報	1951. 12. 15	?	주 간	김 형 근	기독교공보사	
감리회보	1951. 1. 1	1958. 12. 1	월 간	유 형 기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리원	<감리생활> 로 개제 (1959. 1)
國 際 基 督 教 뉴 스	1955. 2. 7	?	주 간	김 형 근	국제기독교 뉴스사	<국제기독교 교사보>로 개제 (1967. 1. 18)
基督報教	1955. 6. 9	?	주 간	한 상 동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100호로 종간
基督通信	1960. 9. 1	?	?	이 상 용		
루터 탄 아 위	1960. 9. 25	?	주 간	지 원 용	킨콜티아사	
기독일보	1960. 10. 11	1961. 5. 28	일 간	김 경	기독일보사	

5) 整備期 (1961-現在)

(1) 時代的 背景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제3공화국 수립이후 전체주의적 통제 아래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2년 유신 헌법이 통과되면서 사회 각층의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어 반체제, 반정부적인 언론 활동은 규제를 받았다. 그러나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기존의 교파 뿐 아니라 신종종교 및 해외에서도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 관련 신문들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신문들은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1970년대 부터는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정면 도전하여 정의 사회의 구현 및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앞장섰다. 즉 경제 발전을 제일의 정책으로 삼고 인권문제 소득 재분배 및 민주화 정책을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던 정부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결과로 많은 기독교 신문, 잡지들이 엄청난 수난으로 정간·폐간을 당하였으며, 또한 계속되는 교파간의 신학논쟁은 기독교 관련 신문들이 진실하게 커 갈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지 못하고 본래 언론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탈하여 그 가치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선교 200주년, 개신교가 선교 100주년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분열과 갈등을 대화와 화해로 교회의 일치운동이 추진되어 새로운 선교적 사명이 확인되므로써 앞으로 한국 기독교 관련 신문들이 갖고 있는 사명은 진실로 크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³⁴⁾

(2) 當時에 刊行된 基督 關聯 新聞의 書誌的 分析

① 福音新聞

- 발 행 인 : 楊春光
- 창간년월일 : 1964년 6월 20일.

34) 이덕주, 上揭書, pp.60-61.

- 발행 주기 : 주간
- 발생 소 : 복음신문사.
- 체 재 : 大版4面.
- 내 용 : 이 신문은 <복음신보>가 중단된 후 재 속간호로 교회의 유대 강화 및 교회의 연합을 목적으로 창간되어 1966년 4월 24일 <韓國福音新聞>으로 개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聯合基督新報

- 발행 인 : 金善穆
- 창간년월일 : 1965년 12월 12일.
- 발행 주기 : 주간
- 체 재 : 大版4面
- 내 용 : 이 신문은 평신도 운동 및 복지사회건설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간행했으나 경영난으로 10호를 내고 중단되었으나, 1966년 5월8일 <대한일보>의 지원으로 11호부터 다시 간행되어 同年 8월 7일자로 <教會聯合新聞>으로 개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③ 기독교 세계

- 발행 인 : 이환신
- 창간년월일 : 1964년 12월 25일.
- 발행 주기 : 주간
- 체 재 : 4줄培版(1936년에 타블로이드 12面으로 전환)
- 내 용 : 이 신문은 <基督教大韓監理會總理院>에서 발행하여 오던 격주간 잡지 <감리교생활>을 改題, 1964년 12월 25일 제 401호로 지령을 계속하여 발행한 주간 신문이다.

④ 男傳道會報

- 창간년월일 : 1965년 9월 15일.
- 발행 주기 : 월간
- 발 행 소 : 大韓聖潔教會男傳道會
- 체 재 : 타블로이드 판 4면.
- 간행 목적 : 전국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창간되었다.

⑤ 韓國福音新聞

- 발 행 인 : 楊春光
- 창간년월일 : 1966년 4월 24일.
- 발행 주기 : 주간
- 체 재 : 大版4面 17段制
- 내 용 : 이 신문은 <福音日報> → <복음신보> → <福音新聞> → <韓國福音新聞>의 계보로 이어졌는데 국제정치와 일반 기사 및 공산권 종교를 보도하였다. 이 신문은 1966년 6월 12일자로 <韓國福音新報>로 개제 발행되었다.

⑥ 教會聯合新報

- 발 행 인 : 金連俊
- 창간년월일 : 1966년 8월 7일.
- 발행 주기 : 주간
- 체 재 : 타블로이드 版 8面
- 내 용 : 이 신문은 <聯合基督教新報>를 계승하여 사회정의와 질서확립, 교회언론의 사명, 다짐을 목적으로 간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⑦ 週刊 기독교

- 발 행 인 : 李一雨
- 창간년월일 : 1970년 11월 15일.
- 발행 주기 : 주간

- 체 재 : 타블로이드판
- 내 용 : 이 신문은 교회일지, 복음선교, 절대순결을 표방하여 1974년 1월6일 제149호 부터 4×6배版으로 원형을 축소하여 현재 까지 간행되고 있다.

⑧ 장로회보

- 발 행 인 : 許奉洛
 - 창간년월일 : 1973년 7월 3일.
 - 발행 주기 : 월간
 - 체 재 : 타블로이드版 4-8面
 - 간행 목적 : 이 신문은 교계 실정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바른 복음화 선교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신문들이 간행되었다.

新聞名	創刊年月日	發刊年月日	發行週期	發行人	發行所	備考
주일신문	1964. 5. 17	?	주간	이 주문		
전국복음화운동	1965. 3. 25		부정기	홍 현 실	전국복음화운동본부	
신학춘추	1965. 4. 9		계간	계 일 승	신학춘추사	
聯合基督新聞	1965. 12. 12	?	주간	김 선 목	연합기독교신문사	<교회연합신보, 1966. 8. 7> → <기독교신문, 1986. 11>
서울YMCA	1966. 3. 1		월간	최 이 권	서울여자기독교청년회	
성공회보	1966. 8. 24		주간	이 천 환	대한성공회	
장노회보	1966. 12. 15		월간	김 광 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크리스찬헤럴드	1968. 10. 15	?	월간	조 동 진	크리스찬헤럴드사	

新聞名	創刊 年月日	發刊 年月日	發 行 週 期	發行人	發行所	備考
여진도회보	1968. 12		월간	주선애	예수교장로회여진도회 전국연합회	
루터교회보	1969. 11. 11		월간	지원상	기독교한국루터회	
주간기독교	1970. 11. 15		주간	이일우	주간기독교사	
週刊宗教	1971. 6. 2		주간	김원필	주간종교사	
가정상담	1971. 10. 5		격월간 /월간	이태영	가정법률상담소편집부	
長老會報	1973. 7. 3		일간	허봉락	장로회연합회	
감리교회소	1975. 2. 15		일간	마경일	기독교대한감리회총회본부	
교경회보	1975. 6. 10		월간	김정덕	서울시교회와경찰협의회	
생명의전화	1977. 1. 31		주간	이영민	생명의전화이사회사무국	
아시아 아 복 음 화	1977. 3. 1		부정기	김세진	아시아연합신학원	
평신도회보	1977. 11. 25		주간	김승남	평신도회보사	
민족복음 공 화 보	1978. 5. 1		부정기	신현균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한예수교 장 로 회	1978. 8. 15		월간	김성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순복음뉴스	1978. 10. 8		주간	최자실	순복음중앙교회문서출판국	
기 독 교 청 년 회 보	1979. 4. 2		부정기	김관식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총 기 독 교 보	1980. 6. 30		부정기	김일남	예장총회본부	
전 국 복 음 선 교 회 보	1980. 10. 15		부정기	김종석	전국복음선교회	
순 복 음 타 임 즈	1981. 3		월간	김남수	순복음뉴욕교회	

新聞名	創刊 年月日	發刊 年月日	發行 週期	發行人	發行所	備考
진 리	1982. 11		월 간	위스윌티	성서침례교회	
선교회보	1983. 1		부정기	한 명 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선교부	
기독교단회	1983. 6. 15		월 간	정영진	한국기독교단총연합회	
교역자공보	1984. 5. 1		월 간	인치상	한국교역자복지재단	
형제회보	1984. 5. 15		월 간	김성규	형제회보사(침례교)	
교회어린이	1984. 12. 28		주 간	임승원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농민의소리	1985. 7. 14		월 간	서경원	한국카톨릭농민회	
농민신문	1985. 10		부정기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맹	
민음의소식	1985. 11. 3		월 간	전가화	한국교회업적성장연구회	
생명의말씀	1986. 봄		계 간	김재전	생명의말씀사	
군복음화신	1987. 1. 22		계 간	한경직	군복음화후원회	
중성결교양회	1987. 5. 10		월 간	이만신	기독교성결중앙교회	
햇 불	1987. 6		월 간	이치일	진도출판사	

V. 結 言

한국 기독교 관련 신문의 역사는 미국 아펜젤러(Appenzeller, H. G)목사에 의하여 1897년 창간된 <조선크리스도회보: The Christian Advocate>로 부터 출발되었다.

개화기에 우리 신문의 성격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 자주독립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된 신문 (협성회 회보, 밀일신문, 경성신문, 滄城新聞, 대국신문) 등이 있다.

둘째 : 개화파 신문에 대항하기 위해서 수구파들이 간행한 신문 (時事叢報, 商務時報) 등이 있다.

셋째 : 한국 침략을 목적으로 언론을 통해 발판을 구축하려는 일본의 앞잡이로 간행된 신문인 (대한신보)가 있었다.

넷째 : 선교를 목적으로 간행된 순수한 종교신문인 (조선그리스도회보, 그리스도신문) 등이 있었다.

한국 기독교 관련신문의 시대적 구분은 <도입기 : 1885-1910년><확립기 : 1911-1934년><수난기 : 1935-1945년><혼돈기 : 1946-1960년><정비기 : 1961-현재>등의 다섯단계로 구분하여 그 역사적 배경 및 서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입기(1885-1910)는 구한말로 호칭되는 시기로 우리 정부의 자주성을 잃고 일본의 침략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시기다. 또한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던 유학 사상이 퇴색되고 기독교에 의한 서구문화의 도입으로 새로운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체험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에 창간된 기독교 관련신문들은 <그리스도신문, 1897년><경향신문, 1906년><예수교신보, 1907년><구세신문, 1909년>등이 창간되었는데, 이 신문들은 한국인들에게 근대 개혁을 위한 계몽적 흔적이 많이 보인다.

2. 확립기 (1911-1934년)는 한일합방이후 35년간으로 기독교 관련신문들이 크게 발전한 시기이다. 따라서 양적으로도 다양했고 질적으로 충실한 시기이다.

그러나 1930년대를 중심으로 일본의 침략정책이 본격화되어 한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려는 시기였으며, 또한 기독교 교파간의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기독교 언론은 큰 시련을 겪은 시기다.

이 시기에 간행된 신문은 <그리스도회보, 1911년><기독신보, 1915년><천주교회

보, 1927년)〈카톨릭시보, 1927년〉〈감리회보, 1933년〉등의 이외에도 10여종이 창간되었다.

3. 수난기(1935-1945년)는 민족 언론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일본은 무단 총독부 정치를 펴서 우리 민족의 언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한했다. 때문에 기독교 관련신문들은 민족적 양심을 지키다가 대부분 정간·폐간을 맞이했으나, 일부 신문은 일본의 앞잡이로 적극 협조하여 굴절된 신앙, 왜곡된 교회의 모습이 표출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창간된 신문들을 보면 〈農村通信, 1935년〉〈朝鮮節制時報, 1936년〉〈基督新報, 1936〉〈慶南教會報, 1937년〉〈福音時代, 1937년〉〈長老會報, 1940년〉〈基督教新聞, 1942년〉등이 있고 이 이외에도 다수가 간행되었다.

4. 격동기(1946-1960년)는 광복을 맞아 억압에서 풀려난 한국 교회가 나름대로 많은 기독교 관련신문들을 다시 창간하여 문화운동에 적극 참여한 시기이다. 그러나 교파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교회의 분열이라는 엄청난 사실앞에 기독교 관련신문도 많은 영향을 받아 본래의 사명을 이탈하여 교파의 대변지로 전락하고 만 시기였다. 이 때에 간행된 신문은 〈基督教公報, 1946年〉〈大邱每日新聞, 1946年〉〈基督教新聞, 1946年〉〈불기등, 1947년〉〈가톨릭시보, 1949년〉〈韓國基督新聞, 1951년〉〈浸禮會報, 1955년〉〈基督教뉴스, 1960년〉〈크리스찬, 1960년〉〈복음일보, 1960년〉〈基督日報, 1960年〉〈새사람, 1960년〉〈宗教新聞〉등 다수가 간행되었다.

5. 정비기(1961-현재)는 4.19학생 의거 및 5.16군사 혁명 이후 유신 헌법의 영향으로 기독교 관련신문의 언론활동이 대폭 위축되었으며, 교파간의 신학 논쟁도 계속된 시기였다. 그러나 1984년을 기점으로 기독교 교파간의 계속되었던 분열과 갈등이 대화와 화해로 일치운동이 추진되어 본격적인 기독교 언론의 중흥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시기에 창간된 기독교 관련신문들을 보면 〈福音新聞, 1964年〉〈聯合基督教新聞, 1965년〉〈기독교세계, 1964년〉〈男傳道會報, 1965년〉〈韓國福

音新聞, 1966년)〈教會聯合新報, 1966년〉〈週刊기독교, 1970년〉〈장노회보, 1973년〉등이 있으며 이 이외에도 많은 신문이 간행되었다.

〈參 考 文 獻〉

1. 류홍열. 한국 천주교회 역사. 성요셉출판사. 1990.
2. 東亞原色世界百科事典. 第 5卷. 東亞出版社. 1983.
3.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제 4권.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소. 1991.
4. 李萬烈. 韓國基督教 文化運動史. 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92.
5. 金元植. “韓國 基督教 言論百年. 基督教思想.” 第301號. 1983.
6. 金奉奎. “教會 新聞의 出現前夜.” 基督教思想. 1968 (12).
7. 崔垞. 韓國 新聞社. 서울: 一潮閣, 1990.
8. 이덕주. 한국 기독교 정기간행물 100년. 서울: 기독교교문사. 1987.
9. 吳周煥. 韓國 近代史, 第 2輯. 서울: 新丘文化社, 1969.
10. 尹春炳. 韓國 基督教 新聞, 雜誌 100年史(1885-1945). 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84.
11. 車倍根. 李大龍. 韓國 新聞學史. 서울: 正音社, 1977.
12. 李鑛求. “開化期 新聞이 여론형성에 미친 영향 - 우리나라 최초 일간지 매일 신문을 중심으로.” 碩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1978 (7).
13. 鄭晉錫. “日帝下의 言論 出版 研究人下.” 新聞研究. 第 19卷 2號. 1978 (가을).
14. 鄭晉錫. “言論史 研究.” 新聞研究. 第 21卷 第 1號. 1980 (여름).
15. 姜정규. “개신교 주간신문의 발전과정.” 基督教 思想. 第 31卷 第 19號. 1987 (9).

16. 韓國 新聞 百年〈史料集〉. 서울: 韓國 新聞 研究所, 1975.
17. 夫貞男. “韓國 新聞社.” 誠信研究論文集. 第 24輯. 1986 (8).
18. 金珉煥. “開化期 新聞의 對內外문제에 대한 關心度.” 言論文化研究. 第 2輯. 全南大學敎 新聞放送學校. 1984.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christianity newspaper related to Korea

Dong-Been Lim*

〈Abstract〉

Christianity Newspapers related to Korea was started from "The Christian Advocate" launched in 1897 by Appenzeller, H.G, American.

From here, through the division of the newspaper related to Korean Christianity, the periodic background of the time, contents of the newspaper published and the bibliographic feature are as follows.

1. The time of Introduction (1885~1910)

As these times were being called the time of the late of Old Han, our countrys old name in history, our government last he independency and Japanese's aggressive policy was started on a full scale. The Confucianism idea taken root in this country for a long time was discolored and we experienced new social and ethical value at this times by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ivilization. Newspapers related with Christianity launched at this time, are 〈Christian Newspaper, 1987〉, 〈Messiah Newspaper, 1909〉, 〈Kyung hwang newspaper, 1906〉, 〈christianity Newspaper, 1907〉, and so on.

*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ong-Nea Women's Junior college.

These papers shows that they tried to enlighten Korean peopel for the modern reformation.

2. The time of Establishment (1911~1934)

The newspapers related with Christianity developed greatly for 35 years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They were multifarious in quantity and faithfulness in quality.

But Japan's aggressive became in earnest around 1930. This times was very the period when Japan tried to annihilate the Korean raice's spirit and culture. Christianity began to be divided into various denominations. From this, the complication between sects came up to the surface. It was the period of time of an ordeal.

The newspapers launched at this time were <The Christ bulletin : The Gui-dok newspaper, 1927>, <The Catholic bulletin, 1927>, <Catholic news, 1927>, <The Methodist church bulletin ,1933>and 10 more.

3. The time of sufferings (1935~1945)

The periods of time were the most difficult time in newspaper and speech.

Japan spread the enforcement government-general and limited Koreens' speech activity positively.

Most of the newspapers related with Christianity were placed under a ban or went out of existence. While partial christian newspaper was made a cat's-paw of Japan positively;at this time faith the inflected and the shape of the distorted church were exhibited.

The newspapers published at this period were 〈The Farm communication, 1935〉, 〈The Christian newspaper, 1936〉, 〈Kyung-Nam Church Report, 1937〉, 〈The Gospel time ,1937〉, 〈Jang Ro bullenton, 1940〉and etc.

4. The time of upheaval (1946~1960)

During this period of time, Korea churches, liberated from a repression by the national liberation, positively participated in a cultural movement in their ownway by publishing many newspapers.

As dissension betwen denominations was deepened all the more, the newspapers related with Christian were affected by the excessive fact of the schism of churches. As the result of things Churches seceded from their original mission and degraded to the representative paper.

The newspaper launched during this period were as follows : 〈The Christian gazette, 1946〉, 〈The Dae-Ku daily newspaper, 1946〉, 〈The Christian Newspaper, 1946〉, 〈Apillan of flamec, 1949〉, 〈The Catholic Report, 1949〉, 〈The Korea Christianity newspaper, 1951〉, 〈The Baptist Report, 1955〉, 〈The Catholic News, 1960〉, 〈The Gospel Daily report, 1960〉, 〈A reborn person, 1960〉

5. The time of perparation

By the affect of the revitalizing reforms constitution after the May, 16th, revolution and April, 19th. revolution, the speech activity was still more contracted and the dissension between the denominations was deepened, but, from 1984 as the starting point, the schism and discord

between Christian churches were melted by the dialogue and the restoration of friendship (2 reconciliation) and the agreement movement has brought the time of speech restoration of Christianity.

The newspaper published at than time were <The Gospel newspaper, 1964>, <The Union Christion newspaper, 1965>, <The Christian World, 1964>, <Korea Gospel newspaper, 1966>, <The Church Union Gaztte, 1966>, <Presbyter Report 1973> and so on.